

# “향토방위 · 시민 안전 헌신 감사”

### 우범기 전주시장, 설 명절 맞아 군 장병 위문 격려

우범기 전주시장이 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찾아 격려했다.

우범기 시장은 23일 35사단 전주대대와 206항공대, 506항공대 등 전주 지역 군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향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향토방위라는 막중한 임무와 더불어 전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 발전을



우범기 전주시장이 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찾아 격려했다.

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군부대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며 업무 공조 체계를 견고

히 할 방침이다.

/김욱기 기자

## “설 명절 장보기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 전주시, 부서별 5개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전개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전개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연휴를 앞둔 23일 신중양시장을 찾아 각종 채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전통시장 홍보에 힘썼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시 각 부서별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설 명절 장보기 행사의 일환으로, 최근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각 부서별로 전주지역 5개 전

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농수산물 등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펼친 뒤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특별 할인판매와 환급행사가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 10%에서 15%로 할인이 상향됐으며, 사용 금액의 15%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도 많이 이용해 달라”면서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전개한다.

“앞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확대하는 등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효자3동 지사협, 설맞이 음식꾸러미 100세대에 전달

전주시 효자3동(동장 오현순)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명호)는 전주들꽃라이온스(회장 권정숙)의 후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 가구 100세대에 설명절 음식을 담은 ‘음식꾸러미’를 만들어 지원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꾸러미 행사는, 전, 과일, 떡국떡, 사골육수 등 명절에 필요한



식품들로 구성하였으며, 전주들꽃라이온스클럽(50만원 상당)의 후원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을 지원 받아 추진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소외 이웃 위한 백미 기탁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23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위한 10kg 백미 34포를 진북동주민센터에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관우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



황이지만 명절을 맞아 주위를 둘러보는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유철호 경감 등 경찰관 5명과 평화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등 15명은 지난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평화동 소재 한 미나리 농장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근절 등 예방활동을 펼쳤다.

## ‘불법체류 근절’ 예방 총력

### 유철호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장, 외국인 근로 농장 방문지도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유철호 경감 등 경찰관 5명과 평화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등 15명은 지난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베트남인 등 8명이 일하고 있는 평화동 소재 한 미나리 농장을 방문하여, 외국인과 함께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과 사건 사고 피해 예방, 불법체류 근절 등 예방활동을 펼쳤다.

방문 당일 사업주 박건호(48세) 씨는 “미나리 농장은 겨울철 추울 때가 제철인 미나리를 얼음 물속에서 수확해야 하는 힘든 일여서 외국인들마저도 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고용 유혹도 있지만 절대로 불법체류자는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과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베트남인 등 8명은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돈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어서 힘들지

만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가족과 같이 잘 보살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함께한 권명덕 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은 “말리 우리 지역까지 와서 추운 날씨에 힘든 일을 해주는 외국인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구대 대장 유철호 경감은 “올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었고 그중 불법체류자가 40여만 명이나 되고 미약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등으로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고용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문 지도 등으로 미라미리 체류 기간 연장 및 비자 변경을 통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기울여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팔복동 지사협, 설맞이 떡국떡 전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인묵)는 지난 22일, 팔복동 주민센터(동장 장진영)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130여 세대에 설 명절맞이 떡국떡을 전달했다.

팔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팔복동 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떡국떡을 직접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팔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인묵 위원장은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



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장진영 팔복동장은 “매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팔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덕분에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설 명절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꾼**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NAVER | 장수물 MALL